

# 「雇傭吸收力 및 人力需要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 論評

金 在 源

## 1. 序 言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雇傭吸收力の 低下에 대한 論議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實證的 分析이 없던 시점에서 최근 KDI의 張鉉俊(1986), 金仲秀(1987) 博士에 의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金仲秀 博士의 論文은 우리나라의 雇傭吸收力の 減少要因이 勞動-資本의 相對價格의 變化에서 기인한 것

인지 또는 投資의 變動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橫斷面資料를 이용한 微視的인 측면에서 勞動需要行態를 분석하고 있다.

위 論文의 실증적 분석결과 우리 경제의 雇傭吸收力の 감소는 相對要素價格의 變動보다는 固定資本形成의 變動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제의 雇傭吸收力の 증대를 위해서는 投資誘因策 등을 통한 투자환경의 개선이 效率的 政策手段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투자의 증대는 산출물 증대 및 노동수요의 증대를 가져다 줄 것이며, 代替效果보다는 規模(또는 產出)效果가 더 크게 나타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결론은 Bognanno, Lee and Kim(198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sup>1)</sup>. 이하에서는 金博士의 巨視的 勞動需要函數 推定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筆者: 漢陽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1) 이 논문에 의하면 代替效果보다는 規模의 效果가 彈力值의 絕對值가 더 크고, 회귀분석에서 統計的 有意性도 後者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規模效果의 長·短期 비교에 있어서 한국 제조업의 生産職 및 非生産職從業員 勞動需要의 規模(또는 生産)效果가 장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경기가 好況일 경우 노동수요를 급격히 증대시키고 不況일 경우 解雇시키는 事業主들의 雇傭行態에 근거하는 바, 이와같이 事業主들이 종업원에 대한 책임의식이 적은 이유 중의 하나는 事業體 特殊的(firm-specific) 人的資本 投資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2. 推定上的 隘路

勞動需要函數 推定에 있어서 경제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체로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경제이론이 제시하는 대로 부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와 둘째는 推定된 係數의 統計的 有意性이 결여된 경우이다<sup>2)</sup>.

金仲秀 博士의 논문에 나타난 式 (5)는 Ball and St. Cyr의 雇傭函數의 變型으로서, 誘導型(reduced form) 短期勞動需要函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式 (6)은 위 基本模型에 資本스톡係數 및 相對要素價格係數의 相互作用變數를 포함시켜 이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可變的이 되는 함수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式 (5)의 基本모형에 나타난 獨立變

數(時差從屬變數  $L_{t-1}$ 을 제외한),  $Q$ ,  $K_t$ ,  $(\frac{w}{r})_t$  중  $Q$ 를 제외한 두 변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可變的인 것이라는 事前的 豫測에 근거한 것이며, 雇傭吸收力의 低下가 資本스톡의 변동과 相對要素價格의 변동 중 어느 것에 더 민감한지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목적을 반영한 것이다<sup>3)</sup>.

推定結果에 의하면 기본방정식 式 (5)보다는 相互作用項을 첨가한 式 (6)이 일반적으로 係數의 符號 및 統計的 有意性 면에서 結果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두 推定式 모두 理論이 事前的으로 제시하는 바를 충족시

- 2) 경제학자들이 實證分析을 시도할 때마다 당면하는 문제는 자신(또는 經濟理論)이 옳다고 판단하는 假說이 실증분석에 의해 기각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특히 만족스럽지 못한 자료나 변수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경우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경제학자들에게 推定值들의 統計的 有意性 檢定 이외에 資料의 신빙성(reliability)검토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計量經濟學者(econometrician)들이 回歸分析의 주된 목적은 檢定(testing)보다는 豫測(forecasting)이라고 보는 견해라던가 또는 假說檢定時 歸無假說(또는 對立假說)이 採擇(또는 기각)되었다는 표현 대신에 기각(또는 채택)되지 않았다는 보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貫行은 測定(measurement)보다는 理論(theory)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고가內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Zellner의 주장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theory without measurement," 또는 "measurement without theory"의 양 극단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즉 이론을 보는 計量經濟學者의 견해와 時系列論者(time-series analyst)의 견해의 양극단은 모두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이론의 有用性和 보편타당성의 어느 한쪽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이다. 理論과 測定이 符合되지 않는 경우 경제이론이 본질적으로 옳다고 보고 測定을 理論에 符合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만이 최선인가에 대한 計量經濟學者와 時系列論者간의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는 Granger and Newbold(1974), Zellner(1980) 및 Gujarati(1979, pp. 1~5)를 참조.
- 3) 이제 變數  $t$ 를 技術變化的 假變數로 보고 相互作用

項을 회귀방정식에 포함시킨 이유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t\frac{w}{r}$ 이 포함된 이유는  $\frac{w}{r}$ 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t$ 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frac{w}{r}$ 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기술변동에 따라 中立的(또는 獨立的) 이 아님을 의미한다.  $t \cdot K$ 項이 포함된 이유도 후자의 변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기술수준의 변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를內在하는 것이다. 기술수준의 변동에 따라(즉 보다 勞動 또는 資本集約的으로) 擴張線의 형태가 달라질 것이므로  $\frac{w}{r}$  또는  $K$ 의 변동이 노동수요에 주는 영향이  $t$ 의 변동과 무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연장해 볼 때  $Q$ 의 변동의 노동수요에 대한 영향도 기술수준의 변동 방향에 달려 있으므로  $t \cdot Q$ 의 相互作用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나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Q$ 는 기술선택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t$ 의 변동은 노동수요에 영향을 주며 그 정도는  $Q$ 의 변동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反論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相互作用項을 회귀방정식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곧 그 두 獨立變數간의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特定 相互作用項을 포함시킨 이유는 한 獨立變數의 變動이 從屬變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獨立變數의 變動과 無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t \cdot Q$ 項을 추가시킬 경우 推定 結果가 더 나아질지의 여부는 事前的으로 알 수가 없다. 참고로 Bognanno, Rhee, Kim(1987)의 경우 正의 規模效果는 長期에 있어 더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t \cdot Q$ 項을 모형에 첨가할 경우 이의 係數가 負의 부호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金博士가 지적한 대로 독립변수간의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리라는 점이다. 사실상 독립변수인  $Q_t, K_t, (\frac{w}{r})_t, t$ 가 모두 상호관련성이 높으리라는 것은 利潤極大化 또는 費用最小化로부터 자본 및 노동수요를 도출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多重共線性 問題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事前的인 ‘올바른’ 정보를 알 경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약 ‘올바르지 않은’ 事前的 情報를 모형에 적용시켜 多重共線性을 해결할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논의할 資料(data)상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노동수요함수의 올바른 추정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3. 政策的 示唆點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은 勞動需要의 변동은 相對要素價格의 변동보다는 投資의 변동에 의해서 더 크게 결정된다는 것이다<sup>4)</sup>. 相對要素價格의 변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 통계적으로 有意의이지 못하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價格의 自動調節機能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일부 노동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產出物市場은 정부의 독과점규제 등으로 가격의 자동 조절기능이 위축되어 왔지만,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의 勞動市場政策등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노동시장에서의 價格機能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이 견해가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주장은 金博士의 실증분석 결과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보여진다.

### 4. 資料上的 問題點

우리나라 통계자료 중 가장 낙후된 부문이 노동과 자본에 대한 통계라는 점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가 밝혔듯이 勞動需要의 分析은 理論的 側面보다도 代替效果와 規模의 效果 등을 추정하는 實證的 側面이 강조되므로, 자료의 선택은 추정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sup>5)</sup>.

본 연구에는 從屬變數인 산업별 부가가치는 全事業體가 그 대상이나 임금이나 근로자 수의 경우 시계열자료는 常傭從業員 10인 이상 사업체가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堅持하지 못하고 있다. 資本스톡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상이한 시리즈가 가능하나 이들 시리즈 간의 연도별 변동추이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減價償却이 稅制上 혜택등의 이유로 매우 크게 나타나 통계자료에 나타나

4) 相對價格 變數의 계수는 相互作用項을 첨가할 경우 全產業 및 製造業의 경우 負의 符號는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계수가 零과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있다.

5) 경제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의 수집이 불가피하므로 KDI, 學界 등에서 건의를 통해서 새로운 survey 또는 기존 survey의 보완·개선을 기획원등에 요구하는 것도 경제학자들의 책임일 것이다. Judge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경제이론 및 계량경제학의 발전은 PSID, NLS, EOPP, Income Maintenance Project Data 등이 이용가능한 데서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고 밝히고 있다.

회계상의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상각과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sup>.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固定資本形成 및 減價償却 자료를 어느 시리즈에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資本스톡의 변동률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회귀분석에서 구하는 推定値들은 그 절대값의 크기가 아닌 변수의 변동률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著者が 추정기간을 1970~84년으로 한정시킨 이유는 郭泰元 博士의 資本스톡 시리즈가 1985년 이후에는 이용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본 및 노동의 자료는 資本의 경우 稼働率, 勞動의 경우 勤勞時間등이 감안되지 않은 스톡 자료이다. 이것은 노

동의 경우 상용종업원의 근로시간 자료는 산업별로 구할 수 있으나 資本의 稼働率을 산업별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파트타임머」등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또한 기업주가 新規採用과 기존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연장 중에서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勞動에서 「플로우」資料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sup>7)</sup>.

### 5. 「디플레이터」의 選定問題

이상의 이론 또는 자료상의 제약점은 모든 경제학자가 당면하는 문제로 보여진다. 金仲秀 博士의 실증분석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資本의 賃借率( $r$ )의 개념과 이를 실질개념으로 사용한 디플레이터의 문제이다.

資本의 價格의 代變數로는 市場利率, 私債利率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私債利率은 市場利率보다는 그 변동폭이 적으며 움직이는 방향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sup>8)</sup>.

資本의 賃借率의 算定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진지한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金仲秀 博士의 논문에서 勞動과 資本의 相對價格은 實質價値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實質賃金의 경우는 名目賃金을 産業別 GDP로, 資本의 實質價格은 消費者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한 것으로 보인다<sup>9)</sup>.

資本의 賃借率이란 新機械의 價格, 利率, 企業의 投資支出에 대한 所得稅制面에서의 혜택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업의 노동수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資本의 價格( $R$ )을 實質概念으로 變換시키는 디플레이터는 실질임금

6) 기존 한국의 資本스톡 자료의 문제점은 宋致榮(1987), 表鶴吉·宋致榮(1987)을 참조할 것.

7) 資本(機械)이 상대적으로 希소한 후진국의 경우 자본의 가동률이 더 낮으며, 자본과 노동간의 생산요소의 效率의 利用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에 대해서는 Gordon C. Winston(1971), Louis T. Wells(1972)를 참조. 노동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曹尤鉉(1985)을 참조.

女性的 경제활동상태를 정의함에 있어서—특히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중 일시적 휴직 사유에 관한 문제—男性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예는 韓國女性開發院(1986, 12, p.321)을 참조.

8) 劉鍾九 教授(1986)는 資本의 賃借率( $r$ )을 다음에 의해서 算定하였다. 즉,

$$r = \frac{V - W \cdot L}{K}$$

단,  $V$  = 부가가치,  $W$  = 名目賃金率,  $L$  = 근로자 수,  $K$  = 資本스톡.

그러나 이렇게 算定된  $r$ 의 값이 全産業의 경우 매우 不安定하고 非現實的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9) McKinnon(1973)은 韓國의 定期預金에 대한 實質收益率을 算定하는 데 도매물가지수를 디플레이터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경우 定期預金者의 대부분이 기업이 아닌 家口이며 분석의 목적도 저축성예금의 변동요인에 있었다.

에서와 마찬가지로 產出物價格指數로 디플레이트시키는 것이 경제이론과 부합된다. 다음의 비용최소화 문제를 생각해 보자<sup>10)</sup>.

$$\begin{aligned} \min. \quad & C = WN + RK \dots\dots\dots(1) \\ \text{s.t.} \quad & Q^0 = f(N, K) \end{aligned}$$

단  $C$ 는 總費用,  $W$ 는 名目賃金率,  $N$ 은 勤勞者數,  $R$ 은 資本의 賃借率(名目價格表示),  $K$ 는 資本스톡,  $Q$ 는 附加價値를 나타낸다. 이때의 最適  $N, K$ 를 보장해 주는 균형 조건식은

$$\frac{W}{R} = \frac{MP_N}{MP_K} \dots\dots\dots(2)$$

가 되며, 1次條件式으로부터

$$\begin{aligned} f_1 = MP_N &= \frac{W}{\lambda} \dots\dots\dots(3) \\ f_2 = MP_K &= \frac{R}{\lambda} \end{aligned}$$

가 도출된다. 단  $MP_N, MP_K$ 는 각각 勞動 및 資本의 限界生産力,  $\lambda$ 는 限界費用을 나타낸다. 產出物市場이 경쟁적이라고 가정하면  $MC = MR = P$ 가 되는 점에서 利潤極大化를 가져다 주므로 式 (3)은 다음과 같이 表記된다.

$$\begin{aligned} MP_N &= \frac{W}{\lambda} = \frac{W}{P} \dots\dots\dots(3') \\ MP_K &= \frac{R}{\lambda} = \frac{R}{P} \end{aligned}$$

즉 名目賃金率 및 名目資本價格의 디플레이터는 결국 그 사업체가 생산하는 產出物價格指數가 된다<sup>11)</sup>.

利潤極大化 模型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음을 고려해 보자

$$\begin{aligned} \max. \quad & TR - TC \dots\dots\dots(4) \\ & = \max. \{ P \cdot Q - W \cdot N - R \cdot K \} \\ & = \max_{N, K} \{ P \cdot f(N, K) - W \cdot N - R \cdot K \} \end{aligned}$$

단  $TR$ 은 總收入,  $TC$ 는 總費用,  $Q$ 는 生産量을 나타낸다. 式 (4)에서는  $R$ 의 디플레이터가  $P$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음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사실상 消費者物價指數는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外生變數이다<sup>12)</sup>.

巨視적으로 보아 한 나라 經濟의 產出物價格의 變動은 消費者價格의 변동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異論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產出物價格은 各 品目마다 (따라서 各 事業體 또는 產業別로) 다르게 나타나나 소비자물가지수는 모든 產業 또는 모든 經濟主體에 單一 指數로 주어진다<sup>13)</sup>.

10) 만약 최적  $N, K$ 의 결정을 기업주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수한 경영 또는 기업 형태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래의 논의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11)  $MP_N, MP_K$ 는 物量概念이다.  $W$  및  $R$ 의 측정 단위는 각각 원/勞動1單位 및 원/資本1單位이며  $P$ 의 측정단위는 원/生産1單位이므로  $MP_N, MP_K$ 는 각각 勞動1單位當 生産量 및 資本1單位當 生産量을 나타낸다.  
 12) 소비자물가지수는 通貨供給, 財政政策, 潛在的 GNP, 輸入價格, 賃金, 農作物의 作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個別企業의 입장에서는 外生變數이다. KIET의 年間産業豫測模型(1987, p.92)에서는 노동수요함수를  $\ln L_t = \beta_0 + \beta_1 \ln O_t + \beta_2 \ln(W/CPI)_t + \beta_3 \ln L_{t-1}$ 로 추정하였는데, 여기서 명목 임금의 디플레이터로  $CPI$ 를 사용한 것이 餘他の 경우보다 설명력과 有意性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회귀분석의 목적이 豫測인 경우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노동수요함수에서 실질임금의 디플레이터로  $CPI$ 가 統計的 有意性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단적으로 勞總, 經總 및 政府部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질임금의 개념이 모두 명목임금을  $CPI$ 로 디플레이트시킨 개념이며, 勞使間의 임금협상시에도 實質賃金으로 이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미루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勞·使·政의 賃金政策 및 勞·使의 賃金協商戰略에 관해서는 金在源 (1987, 9)을 참조.  
 13) 사실상 소비자물가지수는 個人 또는 家口마다 購買하는 商品바스켓이 다르기 때문에 각 個人

이제  $R$ 의 디플레이터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적절하지 않음을 자본과 노동의 배분률의 계산 측면에서 설명해 보기로 하자. 名目價格으로 본  $j$ 번째 사업체  $t$ 期の 노동 및 자본의 배분률은 다음과 같다.

$$\alpha_{jt} = \frac{W_{jt}N_{jt}}{VA_{jt}}, \quad \beta_{jt} = \frac{R_{jt}K_{jt}}{VA_{jt}} \dots\dots\dots(5)$$

한편 企業의 입장에서 實質概念으로 본 分配率은 式 (5)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alpha_{jt} = \frac{W_{jt}N_{jt}/P_{jt}}{VA_{jt}/P_{jt}}, \quad \beta_{jt} = \frac{R_{jt}K_{jt}/P_{jt}}{VA_{jt}/P_{jt}} \dots\dots\dots(6)$$

만약 式 (6)에서  $R_{jt}$ 의 디플레이터로  $P_{jt}$  대신에 消費者物價指數( $CPI$ )를 사용할 경우 名

目 및 實質概念으로 본 資本의 分配률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sup>14)</sup>.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經濟理論에 따르면  $W_{jt}$ ,  $R_{jt}$ 의 디플레이터는 모두  $P_{jt}$ 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實質價値로 표시된 相對價格은 다음과 같다. 즉

$$\frac{w_{jt}}{r_{jt}} = \frac{W_{jt}/P_{jt}}{R_{jt}/P_{jt}} = \frac{W_{jt}}{R_{jt}} \dots\dots\dots(7)$$

단,  $t$ 는 시간을 나타냄.

相對價格의 디플레이터로  $R_{jt}$  및  $CPI_t$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한 경우 實質價値로 표시된 相對價格  $w/r$ 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frac{w_{jt}}{r_{jt}} = \frac{W_{jt}/P_{jt}}{R_{jt}/CPI_t} = \frac{W_{jt}}{R_{jt}} \cdot \frac{CPI_t}{P_{jt}} \dots\dots\dots(8)$$

즉 (7)式과 (8)式을 비교해 볼 때  $\left(\frac{CPI_t}{P_{jt}}\right)$ 라는 교란요인이 존재하게 된다<sup>15)</sup>.

마지막으로 金仲秀 博士가 <表 2>에 제시한 賃金費用의 概念을 賃金費用=各目賃金增加率-勞動生産性增加率-產出物價格의 增加率로 나타냈더라면 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生産品目的 相對價格이 산업별로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은 (金仲秀 博士의 註9 참조) 韓國의 경우 타당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sup>16)</sup>.

韓國의 勞動市場의 分析을 위해서는 要素市場뿐만 아니라 產出物市場에서의 價格決定要因에 대한 分析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비록 勞動市場에서 賃金率이 비교적 自動調節機能을 한다 하더라도 產出物市場에서의 價格決定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결국 勞動市場의 機能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sup>17)</sup>.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14) 相異한 實質賃金의 概念 및 勞·使의 입장에서 본 分配률의 算定方法의 差異點이 存在할 수 있다는 논의는 Nam, SangWoo(1984), 金在源(1987.2 및 1987.9)을 참조.
- 15) 경제이론에 충실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생계의 수단이라는 측면이 看過된다는 反論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률의 결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자의 生計費인데 경제이론에만 의존할 경우 생계비가 고려될 여지가 없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이해관계가 큰 生計費指數(즉 平均的인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저소득층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더욱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反論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와 같이 經濟外的인 고려가 중요시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낮은 수준의 임금지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생계비가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한 사회가 또는 기업이 受容할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고려되어서 和解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Gary S.Field(1986) 또는 金在源(1987.6 pp. 211~229)을 참조.
- 16) 80년대의 産業別 產出物價格의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 농림어업이 기타부문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80년대 安定化政策은 결국 농림어업 및 제조업의 희생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金在源(1987.2)을 참조.

## 6. 結 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資料上的 문제가 제기되나 현재로서는 좋은 처방이 없

- 17) 예를 들어 임금협상이나 成果配分을 勞使間의 自律的인 노력에 맡긴다고 할 경우, 이것이 성공적이기 위한 前提條件이 產出物市場에서의 가격의 自動調節機能의 회복이라는 것은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勞使紛糾의 例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18) 相互作用項의 係數  $\alpha_5$ ,  $\alpha_6$ 의  $t$ -統計量의 비교에서도 같은 점이 발견된다.

는 실정이다. 또한 相對價格의 實質價値로의 전환에 따른 디플레이터의 算定이 앞에서 논의한 바 대로 추정되었다고 해서 產業別 勞動需要 推定이 보다 有意的인 결과를 가져다 주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金仲秀 博士 論文의 <附表 1>에 나타난 要素價格의 分解에 의한 推定式에서  $w$ 에 비해  $r$ 의  $t$ -統計量이 매우 非有意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sup>18)</sup>  $r$ 變數의 修正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 參 考 文 獻 ◁

- 金仲秀, 「雇傭吸收力 및 人力需要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 『韓國開發研究』, 1987 봄.
- 金常隆 朴容國·金龍煥, 『KIET 年間產業豫測模型』, 産業研究院, 1987. 2.
- 金在源, 「賃金政策 40年の 回顧」, 『勞動經濟年鑑(1987)』, 韓國經營者總協會.
- , 「勞使間의 勞動配分率算定上の 差異가 勞使紛糾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1986年 定期學術大會論文集』, 韓國經濟學會, 1987. 2.
- , 『最低賃金 이야기』, 韓國經濟新聞社, 1987. 6.
- 宋致榮, 『韓國의 資本스톡 推計』, 經濟學 碩士學位論文,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7年 2月.
- 劉鍾九, 「韓國의 潛在的 GNP推定에 관한 研究」, 『經濟研究』, 第7卷 第2號, 漢陽大學校 經濟研究所, 1986. 11.
- 張鉉俊, 「雇傭과 生産技術發展의 相關關係: 한국·일본·대만의 比較」, 『韓國開發研究』, 第8卷 第3號, 1986 여름.
- 崔淳成, 『產出量과 雇傭과의 動態的關係에 관한 實證的 分析—製造業部門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漢陽大學校 大學院, 1986. 12.
- 表鶴吉·宋致榮, 「韓國의 資本스톡推計」, 『1986年度 定期學術大會 論文集』, 韓國經濟學會, 1987. 2.
- 韓國女性開發院, 『女性의 就業實態調查—미혼女性을 中心으로』, 1986. 12.
- Ball, R.J. and E.B.A. St. Cyr, "Short Term Employment Functions in British Manufacturing Industry," *Review of Economic Studies*, March 1966.
- Bognanno, M.F., Y.S. Lee and S.K.Kim, "Production and Non-production Labor Demanded in Korea's Manufacturing Sector", Presented to Korean-German-American Seminar in Employment Effec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Sponsored by Friedrich Ebert Stiftung, Seoul and Korean Labour Economics Association, Suanbo, March 7 and 8,

- 1987.
- Field, Gary S., "A Proposed Minimum Wage Scheme for Korea," mimeographed, 1986.
- Granger, C.W.J. and F. Newbold, "Spurious Regressions in Econometrics," *Journal of Econometrics*, 1974.
- Gujarati, D.,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1978.
- Kim, Jae Won, "Manpower Implications of the 6th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Presented to Korean-German-American Seminars in Employment Effect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Sponsored by Friedrich Ebert Stiftung, Seoul and Korean Labour Economics Association, Suanbo, March 7 and 8, 1987.
- McKinnon, Ronald I., *Money and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3.
- Nam, Sang Woo, "Korea's Stabilization Efforts Since the Late 1970s," KDI Working Paper 8405, 1984.
- Wells, Louis T. Jr., "Economic-man and Engineering-man: Choice of Technology in a Low Wage Country," Harva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November 1972.
- Winston, Gordon C., "The Reasons for Idle Capital," Research Memorandum No.2, Williams College, May 1971.
- Zellner, Arnold, "Causality and Econometric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80(supplement).